

영작문 오류 분석을 통한 한국 중학생들의 형태소 습득 단계 고찰

진 경 애(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

《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한국 중학생들의 영어 형태소 습득 단계를 고찰하여 다른 모국어를 쓰는 영어 학습자들의 습득 단계와 비교하기 위하여, 한국 학생들의 영작문 오류 분석을 바탕으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다른 나라 영어 학습자의 습득순서와 비교하였다. 한국 학생들의 습득순서는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하는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Dulay & Burt(1974)의 형태소 습득 연구결과와는 크게 차이가 나는 반면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는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결과와는 상당부분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한국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현재진행형, 조동사 be, 소유격 등을 비교적 쉽게 습득하는 반면 관사, 과거형, 3인칭 단수, 그리고 복수형에서 오류를 많이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중학생들의 영어 형태소 습득순서는 일본인들과는 각각 .45(NICT)와 .548(TONO)로 양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와는 .048의 상관계수를 보여 상관관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영작문, 오류 분석, 모국어 영향, 오류 코퍼스, 형태소 습득

I . 서론

한국의 초·중등 영어과 교육과정의 목표는 실생활에서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이다. Canale & Swain(1980)에 의하면 의사소통 능력은 크게 문법적 능력(grammatical competence), 사회언어학적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 담화 능력(discourse analysis), 전략적 능력(strategic competence)로 구성된다. 문법적 능력은 외국어를 문법에 맞게 정확하게 구사하는 능력을 일컫으며, 사회 언어학적 능력은 사회적 규범이나 상황에 적절하게 의사소통하는 능력이고, 담화 능력은 논리적 표현력이며, 전략적 능력은 의사소통을 위한 전략을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을 일컫는다. Bachman(1990)은 의사소통 능력을 크게 언어 능력(language competence), 전략적 능력(Strategic Competence), 그리고 심리-생리적 기제(Psycho-Physiological Mechanism)

로 구분하였는데, 이 중 언어능력은 다시 문법적 능력(Grammatical Competence)과 지문 능력(Text Competence)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적 능력(Organizational Competence)과 화용적 능력(Pragmatic Competence)으로 나뉜다. 이와 같이 Canale & Swain(1980)과 Bachman(1990)에 의하면 의사소통 능력은 기본적으로 문법적 능력을 포함하고 있으나, 의사소통 능력 중심의 영어 교수법(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을 강조하는 맥락에서는 문법능력 혹은 문법교육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문법구조에 대한 명명을 기피하여,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과 개정된 교육과정 문서를 살펴보면 문법구조에 대한 명명은 없이 부록에 ‘의사소통에 따른 언어형식’이라는 항목하에 주요 문법구조에 대한 예시문만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문법적 능력은 의사소통 능력의 중요한 요소일 뿐 아니라 언어 습득 이론에 의하면 언어 습득의 단계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따라서 외국어학습상황(EFL;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에서 문법구조 습득 단계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문법구조의 습득을 활성화하는 적절한 교수법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문법구조의 습득 단계에 대한 연구는 미국에서 ‘모국어 습득(First Language Acquisition)’ 분야에서 오래 전부터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모국어 습득 이론의 영향을 받는 제2언어 습득(Second Language Acquisition) 분야에서도 그 이후 지속적으로 탐색되고 있는 분야이다. 문법구조 습득에 대한 연구는 ‘형태소 습득 연구(Morpheme Studies)’의 형태로 모국어 습득과 외국어 습득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언어 습득을 고찰할 수 있는 또 다른 연구분야는 오류 분석(Error Analysis)이며, 학습자의 오류를 분석하여 언어 습득의 단계를 고찰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형태소 습득 단계를 영작문 오류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주요 영작문 구문에서 중학생들이 범하는 오류의 유형과 빈도를 고찰하여 학교수업에서 학생들의 정확한 영어 사용과 습득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다른 모국어를 쓰는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형태소 습득 단계와 비교하여 기존의 연구 결과와의 연계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 오류 분석

제2언어 학습자의 언어 습득 단계를 고찰하기 위한 방법으로 오류 분석이 이용된다. 모든 학습자는 학습 단계에서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이는 언어 습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언어 습득에 있어서의 오류는 단순한 수행상의 실수(mistakes)와 오류(error)로 구분되어지는데 오류는 중간언어(Interlanguage)¹⁾로 학습자의 현재 상태에서 체계적인 규칙이 적용되는 문법

1) 제2언어 학습체계가 모국어과 목표어(target language) 둘 다와 다르며 구조적으로 이 두 언어의 중간에 위치한 독립적인 체계

이다. 중간 언어의 문법은 오류 분석을 통하여 관찰, 분류할 수 있다.

Lennon(1991)의 오류 기술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오류 기술의 가장 일반화된 분류는 첨가, 생략, 대치 그리고 어순으로 식별한다. 둘째, 각각의 범주 안에서 오류가 어느 유형(단계)에 관련된 것인지 고찰하여야 하는데 때로는 구별이 어려울 수 있다. 셋째, 오류는 총체적 오류와 국부적 오류로 나뉘어지는데 총체적 오류는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경우이다. 넷째, 오류의 영역과 범위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영역은 음소에서부터 담화까지 언어의 단위이고 범위는 수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단위로 부정관사, 동사 등이 이에 속한다.

제2언어 학습자가 범하는 오류의 원인은 크게 모국어 전이로부터 오는 오류(L1 transfer)와 언어내적 오류(interlingual)로 구분된다. 언어 간 전이오류는 중간언어의 초기단계에 많이 발생하는데, 제2언어 체계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모국어의 체계를 도용하게 되는 현상이다.

언어 내적오류는 제2언어 체계를 습득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목표 언어 내에서의 과일반화(overgeneralization) 현상이 두드러지게 된다(Brown, 2000). 한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오류석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 번째는 회피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회피 → 모국어 전이 → 언어 내적오류의 순이고, 세 번째 단계는 모국어 전이 → 언어 내적오류 순이고, 네 번째 단계는 언어 내적오류 → 모국어 전이의 순으로 오류의 원인이 변화한다고 제시하고 있다(이동한, 2004).

III. 선행연구

오류 분석을 통한 제2언어 습득순서를 고찰하는 연구로는 Dulay & Burt(1973)의 형태소 연구(morpheme studies)가 있다. Dulay & Burt(1973)는 스페인어를 모국어화하는 6~8세 어린이 151명을 대상으로 이중언어구문분석 도구(BSM; Bilingual Syntax Measure)를 활용하여 영어의 8개 구조 습득순서를 고찰하였다. 습득순서는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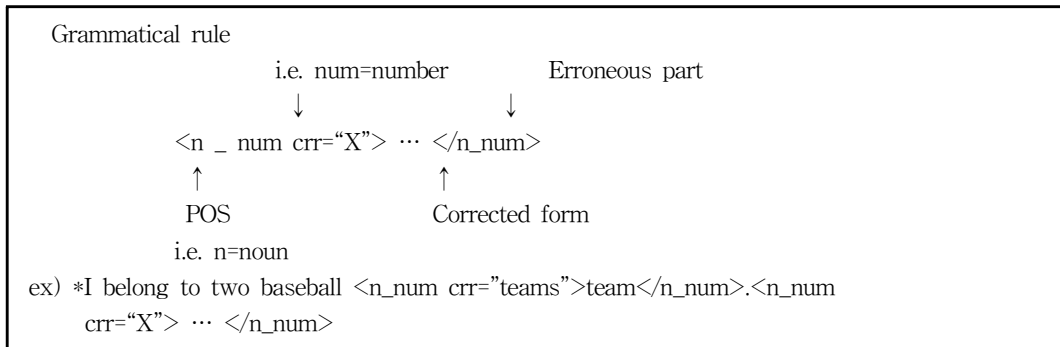
<표 1> Dulay & Burt(1973)의 형태소 습득순서

<Earlier>	1. plural -s
	2. progressive -ing
	3. copula be
↓	4. auxiliary be
<Later>	5. article
	6. irregular past tense
	7. third person singular present tense -s
	8. possessive-'s

Izumi & Isahara(2004)는 1,281명의 일본인을 대상으로 그림묘사, 역할극, 스토리텔링 등의

과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Standard Speaking Test(SST)를 통하여 학습자가 발화한 내용을 중심으로 NICT JLE 코퍼스를 구축하였다. Izumi & Ishara(2004)는 코퍼스를 통하여 언어 습득 단계를 고찰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라고 제시하였는데, NICT JLE 코퍼스가 자동적으로 문법, 단어, 화용적 용법, 담화 등 47가지의 오류 태그를 생성하는데, 문법적인 오류와 단어 오류만을 활용하여 습득순서를 제시하였다.

〈표 2〉 NICT JLE 코퍼스 오류 태그 구조 예시(Izumi & Isahara, 2004)



Izumi & Isahara(2004)는 코퍼스를 활용한 ‘형태소 점수’(특정 구조의 총 경우 수 대비에 맞는 경우의 수)를 통하여 일본인 학습자들의 형태소 습득순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3〉 Izumi & Isahara(2004)의 형태소 습득순서

	1. possissve-'s
<Earlier>	2. progressive -ing
	3. copula be
↑	4. third person singular present tense -s
	5. plural -s
<Later>	6. auxiliary be
	7. irregular past tense
	8. article

Dulay & Burt의 형태소 습득순서와 서열상관은 -.48(Spearman rank coorelation)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영어 형태소 습득은 모국어나 학습자의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Dulay & Burt(1973)의 형태소 습득순서는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하는 어린이 학습자 대상이고 Izumi & Isahara(2004)는 일어를 모국어로 하는 성인 대상이다. 두 그룹 간 습득순서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요소는 관사(article)와 복수형으로, 일본인들의

경우 관사를 가장 늦게 습득하는 이유는 관사, 정관사(a/the)의 개념이 없어 모국어의 간섭(L1 interference)이 있기 때문이다.

IV.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 중학생들의 영어 형태소 습득 단계를 고찰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영작문 시험결과를 토대로 오류 분석을 시행하고, 그 중 형태소 오류 분석 결과와 기존의 연구 결과의 습득순서를 비교·고찰하였다.

1. 영작문 시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실제 영작문 샘플에서 오류 답안을 취합하여 분석작업을 실시했다. 오류 분석 자료는 2005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한 학업성취도 중학교 3학년 영어 문제 A형, B형에서 쓰기 서답형 문항인 수행평가 10번의 (1)번과 (2)번을 사용했으며²⁾ 각 문항당 약 1,000개의 오류문장을 분석하였다. 학업성취도 영작문 문항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영어로 된 글(e.g. 편지)의 일부를 빈칸으로 처리하고, 한글로 빈칸에 들어갈 문장이 제시된다. 학생들은 전체 문맥을 고려하여 주어진 한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영작을 해야 한다. 문항은 단문 수준(문항 1번: 3형식+전치사구, 문항 2번: 2형식)의 간단한 문법적 지식을 요구하며, 문항당 각 2점, 총 4점이 배당된다. 다음은 중3 영어 A형 수행평가 10번 문제의 일부이다.

〈A형 문항〉 다음은 Min-su가 미국 친구 Tim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아래에 주어진 내용에 맞게 빈칸에 들어갈 문장을 영어로 쓰시오. [4점]

(편지 생략)

(1) _____
나는 남동생과 함께 〈Star Wars〉 영화를 보았다.

(2) _____
그 영화는 무척 재미있었다.

2. 오류 분석

2) 학업성취도 중3 영어 B의 경우 보안의 문제로 문항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다.

오류 분석을 위해 학생들이 답안지에 작성한 정답과 점수를 컴퓨터에 입력한 후, 정답 문장과 수험자 정답을 비교하여 오류유형을 분류했다.

〈표 4〉 오류 분석 문장 수(4,161 문장)

유형	문항 1	문항 2	합계
영어 A	1027	973	2000
영어 B	1100	1061	2161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석된 전체 오류 문장 수는 4,161문장이며, 이 중 영어 A가 총 2,000문장(문항 1: 1027, 문항 2: 973), 영어 B가 총 2,161문장(문항 1: 1,100, 문항 2: 1061)이다. 오류 분석 결과, 전혀 내용이 맞지 않는 등 분석이 불가능한 오류를 제외하면 총 11,634개의 오류가 분석되었다. 전체 오류는 구문 오류, 내용 오류, 형태소 오류, 기타 오류 등 총 네 가지로 분류되며, 상위 오류유형은 15가지이다. 구체적인 구문 오류는 전체 오류의 약 48%인 총 4558개이며, 형태소 오류가 약 41%인 4,714개며, 의미 전달 측면에서의 오류인 내용 오류가 약 20%인 2334개에 달했다. 그러나 오류 빈도수가 높은 것이 반드시 오류의 경중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형태소 오류는 전체의 약 41%나 차지하지만, 이 중 97%가 가벼운 오류에 해당하는 맞춤법, 철자법 오류(Mechanics)였다.

〈표 5〉 한국 중학생들의 오류유형과 빈도

분류	유형	오류 개수	백분율
구문 오류 (총 4558) -약 48%	1. 일치/격	※ 수 일치 오류-동사 (3인칭 단수)	720
		※ 수 일치 오류-명사(복수)	855
		수 일치 오류-지시대명사	3
		대명사/명사 격 오류	136
	2. ※ 관사 오류	관사 생략	307
		불필요한 관사 추가	41
		고유명사 앞 관사 사용	93
	3. 전치사 오류	전치사 선택	34
		전치사 추가	56
		전치사 생략	83

구문 오류 (총 4558) -약 48%	4. 관계사	관계사 생략	9	0.77
		관계사 선택	1	0.08
		관계사 삽입	24	0.20
	5. 동사 오류	태	22	0.18
		※ 서술어 오류(조동사 be)	133	1.14
		※ 시제 불일치(불규칙 과거)	617	5.29
		불완전한 구동사	534	4.58
		동사과거형 오류	13	0.11
		동사형태 선택 오류(to+동명사)	12	0.10
		※ 동사 선택 오류 : V-ing	73	6.26
		Be동사 축약 오류	68	0.58
	6. 어순 오류	어순	158	1.35
	7. 통사 오류	주어 생략	12	0.10
		목적어 생략	2	0.01
		보어 생략	1	0.008
		접속사 삽입	19	1.63
		접속사 생략	67	0.57
		※ 서술어 생략(copula be)	375	3.22
		구조상의 오류-한국어의 영향	90	0.77
내용 오류 (총 2334) -약 20%	8. 내용어 생략 : 중심어	대명사 생략	18	0.15
		명사 생략	233	2.00
		부사 생략	162	1.39
		형용사 생략	732	6.28
		동사 생략(to부정사 뒤)	27	0.23
	9. 단어 선택 오류	관사/소유격 선택	1	0.08
		접속사 선택	4	0.03
		단어 선택 오류	388	3.33
	10. 불필요한 단어 삽입	불필요한 단어 삽입	584	5.01
	11. 기능어 생략 : 부가어	※ 소유격 생략	185	1.59
형태소 오류 (총 4714) -41%	12. 비교급 오류	형용사 형태 오류	32	0.27
	13. 분사 형태 오류	현재/과거 분사 혼동	92	0.79
	14. Mechanics	스펠링 오류	665	5.71
		Capitalization Error	1820	15.63
		Punctuation	2105	18.07
기타(총 28) -0.3%	15. 기타	정답 2개 입력	9	0.08
		한글 사용	19	0.16

위의 오류 유형은 총 15개인데, 이중 형태소 오류로 분류된 오류와 구문 오류로 구분된 오류 중 Dulay & Burt(1973)의 형태소와 일치하는 8개 오류 유형³⁾의 빈도 수를 추출하여 그 순서를 정한 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습득순서와 서열 상관관계를 구하였다. 본 오류 분석에서 도출한 8개 오류영역의 빈도수와 오류의 실제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 6〉 한국 중학생들의 형태소 오류 빈도

습득순서	형태소	오류 빈도
1	현재진행형 -ing	73
2	조동사 -be	133
3	소유격 -s	185
4	copula be	375
5	관사	441
6	불규칙 과거	617
7	3인칭 단수 -s	720
8	복수 -s	855

한국 중학생들이 범한 형태소 오류를 포함한 문장 및 오류 형태는 다음과 같다.

- * The movie were very funny. [3인칭 단수 -s]
- * The movies was very interested. [복수 -s]
- * My family is a five. [관사]
- * The movie very interesting. / * My family number five. [copula -be]
- * I was watch movie about “star wars” with my brother. [조동사 -be]
- * That movie is very fun. (※과거형 요구 시) [불규칙 과거]

3. 습득순서 고찰

한국 중학생들의 영어구문 습득 단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영작문 답안의 오류 분석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보았다. 모국어가 서로 다른 4개의 그룹의 영어 문법구조 습득순서를 비교하여 봄으로써, 오류의 원인이 모국어와 상관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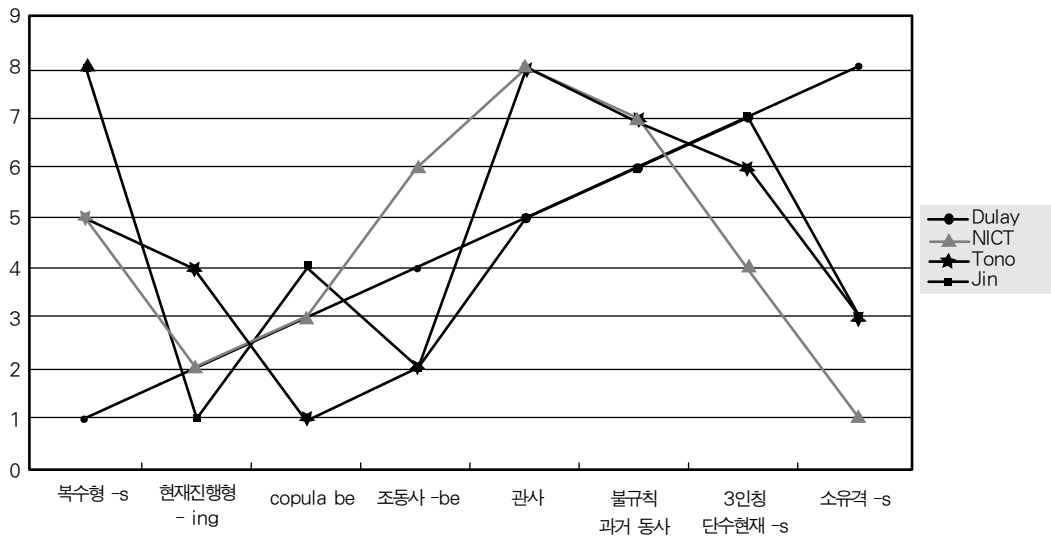
선행연구 중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형태소 분석 연구결과와,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는 집단의 형태소 분석결과, 그리고 본 연구에서 도출한 한국 중학생들의 오류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보았다. 본 연구의 오류 분석의 범위는 선행연구의 범위보다

3) 〈표 5〉의 오류 중 ※로 표시한 형태소가 이에 해당

는 확장되어 형태소뿐 아니라 구문, 단어 오류까지 포함하였으나 선행연구와의 비교분석을 위하여 8개 형태소의 오류 빈도를 중심으로 습득순서를 정하였다.

〈표 7〉 형태소 오류 습득순서 비교

구분 습득순서	Dulay & Burt (1974, 1975) 모국어 : 스페인 대상 : 6~8세	NICT : Izumi & Isahara(2004) 모국어 : 일본어 대상 : 성인	Tono(2002) 모국어 : 일본어 대상 : 8~12학년	현행 연구(2007) 모국어 : 한국어 대상 : 중학교 3학년
1	복수형 -s	소유격 -s	copula be	현재진행형 -ing
2	현재진행형 -ing	현재진행형 -ing	조동사 be	조동사 - be
3	copula be	copula be	소유격 -s	소유격 -s
4	조동사 -be	3인칭 단수 -s	현재진행형 -ing	copula be
5	관사	복수 -s	복수 -s	관사
6	불규칙 과거 동사	조동사 be	3인칭단수 -s	불규칙 과거
7	3인칭 단수 현재 -s	불규칙 과거 동사	불규칙 과거 동사	3인칭 단수 -s
8	소유격 -s	관사	관사	복수 -s



〔그림 1〕 형태소 오류 습득 순서 비교

한국 학생들의 습득순서는 스페인어 모국어를 대상으로 하는 Dulay & Burt(1974)의 형태소 연구결과와는 크게 차이나 나는 반면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는 연구 결과와는 상당부분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한국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현재진행형, 조동사 be, 소유격 등을 비교적 쉽게 습득하는 반면 관사, 과거형, 3인칭 단수, 복수형에서 오류를 많이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습득순서의 상관관계를 스피어만(spearman)의 상관계수로 구하면 다음과 같다. 스피어만의 상관계수는 서열변인인 두 변인 간의 상관의 정도를 나타낸다.

〈표 8〉 형태소 오류 습득순서 비교

구 분	Dulay_Burt (스페인어)	NICT (일본어)	TONO (일본어)	Jin (한국어)
Dulay_Burt	1.000			
NICT	-0.048	1.000		
TONO	0.238	0.619	1.000	
Jin	0.048	0.405	0.548	1.000

한국 중학생들의 영어 형태소 습득순서는 일본인 학습자들과는 각각 .45(NICT)와 .548(TONO)로 양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와는 .048의 상관계수를 보여 상관관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한국 중학생들의 영작문 오류 중 형태소 오류를 대상으로 다른 모국어를 쓰는 영어 학습자의 습득순서와 비교하였다. 오류 분석 자료는 2005년 학업성취도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각 문항당 약 1,000개의 오류 문장을 분석하였다. 영작문 문항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영어로 된 글(e.g. 편지)의 일부를 빈칸으로 처리하고, 한글로 빈칸에 들어갈 문장이 제시된다. 학생들은 전체 문맥을 고려하여 주어진 한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영작을 해야 한다.

한국 중학생들의 영어 형태소 습득 단계를 고찰하기 위하여 모국어가 서로 다른 4개의 그룹의 영어 형태소 습득순서를 비교함으로써, 오류의 원인이 모국어와 상관이 있는지 알아보 고자 하였다. 선행연구 중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하는 집단의 형태소분석 연구결과와,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는 두 집단의 형태소 분석결과, 그리고 본 연구에서 도출한 한국 중학생들의 오류 분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한국 학생들의 습득순서는 스페인어 모국어를 대상으로 하는 Dulay와 Burt(1974)의 형태소 연구결과와는 크게 차이나 나는 반면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는 연구결과와는 상당부분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한국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현재진행형, 조동사 be, 소유격 등을 비교적 쉽게 습득하는 반면 관사, 과거형, 3인칭 단수, 그리고 복수형에서 오류를 많이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중학생들의 영어 형태소 습득순서는 일본인 합격자들과는 각각 .45 (Izumi & Isahara, 2004)와 .548(TONO, 2002)로 양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와는 .048의 상관계수를 보여 상관관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영어 습득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학습자 중간언어의 오류의 원인은 상당 부분 모국어의 간섭(L1 Transfer)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은 한국어와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의 형태소 습득 단계의 상관관계가 다소 높은 반면, 한국어와 일본어와는 어순, 구문 규칙, 형태소 규칙, 어휘 등이 상당히 다르지만 영어와는 유사한 스페인어 학습자와는 상관관계가 낮은 결과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그러나 한국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구사능력이 낮은 단계에서 실시한 연구이고, 비교적 높은 단계의 학습자들의 오류유형을 반영한 것이 아니므로 학습자의 영어 구사력 수준을 변인으로 하여 향후 연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한국 중학생들은 현재진행형, 조동사 be, 소유격 등을 비교적 쉽게 습득하는 반면 관사, 과거형, 3인칭 단수, 복수형에서 오류를 많이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어수업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이 많이 범하는 오류와 형태소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문법구조를 의식할 수 있도록 규칙의 제시와 내면화(internalization)을 도울 수 있는 효율적인 교수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박병제(1995). 오류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영작문 지도법. **영어어문교육**, 창간호, 159-187.
- 이동한(2004). 초등학습자의 영어 쓰기에서 나타난 오류 분석에 관한 사례 연구. **영어교육연구**, 16(1), 157-182
- 이윤(2005). 자가 오류 분석과 diary 쓰기를 통한 교육대학생의 교실 영어 사용 능력 신장 방안. **초등영어교육**, 10, 127-156.
- 진경애, 남명호, 김명화, 오상철, 김민정, 주형미, 신호필, 반재천(2006). **서답형 문항 자동 채점 프로그램 도입 방안 연구 (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 보고 RRE 2006-6.
- Bachman, L. (1990). *Fundamental Considerations in Language Test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rown, H.D. (200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Printice Hall, Inc. New Jersey.
- Canale, M. & Swain, M. (1980).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 testing. *Applied Linguistics*, 1, 1-47.
- Dulay, H. & Burt, M. (1973). Should we teach children syntax? *Language Learning*, 23, 95-123.
- Izumi, E. & Hitoshi, I. (2004). *Investigation into language learners' acquisition order based on an error analysis of a learner corpus*. Paper presented at IWLeL2004: An Interactive Workshop on Language e-Learning. 63-71
- Lennon, P. (1991). Error: Some problems of definition, identification, and distance. *Applied Linguistics* 12, 180-196.
- Tono, Y. (2002). *The role of learner corpora in SLA research and foreign language teaching: The multiple comparison approach*.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Lancaster University, UK.

• 논문 접수 : 2007년 4월 15일 / 수정본 접수 : 2007년 5월 15일 / 게재 승인 : 2007년 5월 25일

ABSTRACT

Investigation of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Acquisition of English Morphemes through Error Analysis

Kyung-Ae Jin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 Evaluation)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xtent of Korean students' acquisition of English morphemes. In order to explore the extent of acquisition, error analysis was implemented with writing samples of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Out of the 4,161 sentences 11,634 errors were found and analyzed. The types of errors were categorized as syntactic, content and morphological, and the frequency of the errors was used as the indicators of acquisition. For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the easiest structure was 'present progressive' followed by 'auxiliary - be', 'possessive -s', 'copula -be', 'articles', 'irregular past', '3rd person singular', 'plural -s'. The acquisition order of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was compared with that of Spanish learners (Dulay & Burt, 1973) and the Japanese learners (Izumi, E. & Hitoshi, I. 2004; Tono, Y). The correlation between Korean learners and Japanese learners in the acquisition of English morphemes was adequately high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 .45 and .548), while the correlation with Spanish learners was quite low (.048). From the current study, it was found that the L1 interference is influential in that Korean and Japanese learners share similar order of acquisition while that of Spanish learners was quite different.

Key Words : error analysis, morpheme studies, language acquisition, language corpus